

# 보성스님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다시 푸는 경서

####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19

又云乎 言辭所說法 小智妄分別  
 又云乎 言辭所說法 小智妄分別  
 是故生障礙 不了於自心 不能了自心  
 是故生障礙 不了於自心 不能了自心  
 시고생장에 불로어자심 불능요자심  
 云何知正道 彼由顛倒覺  
 운하지정도 피우전도혜  
 增長一切惡 伏望修眞高士  
 增長一切惡 伏望修眞高士  
 증장일체악 복망수진고사  
 依如上懇苦之言 先修深信自心  
 依如上懇苦之言 先修深信自心  
 의여상간고지언 선수심신자심  
 是諸佛本原 以觀照定慧之力發出之  
 是諸佛本原 以觀照定慧之力發出之  
 시제불본원 이관조정혜지력발출지  
 不可端居抱愚 效無分別 而爲大道  
 不可端居抱愚 效無分別 而爲大道  
 불가단거포우 효무분별 이위대도  
 所謂在總眞如 香散皆具 出總眞如  
 所謂在總眞如 香散皆具 出總眞如  
 소위재전진어 혼산개구 출전진어  
 定慧方明 總別條然 前後  
 定慧方明 總別條然 前後  
 정혜방명 총별조연 전후  
 無差故也  
 무량고야

유심결은 흑암위 고추어극  
 聖 或積德 望滿於三祇 不知全體現前  
 聖 或積德 望滿於三祇 不知全體現前  
 성 축적덕 망만어삼지 부지전체현전  
 猶希妙悟 豈從來具足 仍待功成  
 猶希妙悟 豈從來具足 仍待功成  
 유희묘오 기각종래구족 인대공성  
 不入圓常 從成輪轉  
 不入圓常 從成輪轉  
 불입원상 종성윤전 지  
 爲味於性德 罔辨眞宗 捨覺徇塵  
 爲味於性德 罔辨眞宗 捨覺徇塵  
 위매어성덕 망변진종 사각순진  
 棄本就末 此之是也  
 棄本就末 此之是也  
 기본취말 차지시아  
 是故 修心之人 不自屈不自恃  
 是故 修心之人 不自屈不自恃  
 시고 수심자인 불자굴불자시  
 恃即墮於此心 不守自性 能凡能聖  
 恃即墮於此心 不守自性 能凡能聖  
 시즉타어차심 불수자성 능범능성  
 判那造作 還復漂沈之用 是以  
 判那造作 還復漂沈之用 是以  
 찬나조작 환부표침지용

또 '금생에 물든 번뇌를 다스려서  
 내생에는 청정해지리라' 하여 본래의  
 묘한 마음을 보지 않고, 스스로 어렵다  
 는 생각을 내어 점차로 닦아가는 수행

그리고 '말로 하는 설법은 작은 지혜

### 엄매임을 벗어난 진여라야

### 선정과 지혜가 밝아지는 것

의 망령된 본별이다.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 제 마음을 알지 못한다. 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겠는  
 가. 그들은 뒤집힌 지혜로 말미암아 온  
 갖 악을 더할뿐이다'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삼가 바라나니, 진리를 닦  
 는 높은 선비는 이상의 간곡한 말에 의  
 해 먼저 제 마음이 바로 부처의 근본입  
 을 깊이 믿고, 그 근본을 비취보는 선정  
 과 지혜의 힘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어  
 리석음을 안고 단정하게 앉아 본별이  
 없는 것만을 본받는 것으로 대도라 해  
 서는 안된다. 엄매임 속에 있는 진여는  
 혼침과 산란이 들어 있고, 엄매임을 벗  
 어난 진여야 비로소 선정과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와 개체  
 가 서로 조리가 있어 알위가 질서정연  
 하기 때문이다.

을 택해서는 안된다. <유심결>에 '보  
 살의 지위를 사양하여 지극한 성인에  
 게 미루고, 혹은 덕을 쌓아 삼이승지급  
 이 차기를 기다리고, 혹은 전체가 앞에  
 나타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묘  
 한 깨달음만을 바라니 어찌 본래 구비  
 해 있는 진여(眞如)를 깨달겠는가. 이  
 래서 공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원만하고 변함없는 데에 들어가  
 지 못하고 마침내 생사에 해하는 것은  
 단지 성품에 어두워 참된 진리를 분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버리고  
 번뇌를 쫓아가고, 근본을 버리고 즐기  
 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 말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비굴  
 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않아야 한다.  
 의지하면 마음이 자성을 지키지 못하  
 여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며, 참나  
 로 조작하여 다시 찢다 잡겠다 하는 작  
 용으로 돌아가는 데에 떨어지고 만다.

亦不可謂 現今治其染 當來得其淨  
 亦不可謂 現今治其染 當來得其淨  
 역불가어-현금치기염 당래득기정  
 不觀本妙 自生癡阻 而劣修漸行  
 不觀本妙 自生癡阻 而劣修漸行  
 불관본묘 자생치조 이노수진행  
 唯心訣云 或讓位 高推於極

김원각<시인·역경위원>

# “계 지킴은 불자의 당연지사”



◊송광사방장 보성스님은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장서야 하는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송광사(松廣寺)를 품고 있는 조계산 능  
 선은 수도하는 승려를 상징하듯 골골한 소  
 나무가 뿔뿔하여 가히 총림(叢林)의 사격  
 을 보여주고 있었다. 흰 눈발이 우뚝 서있  
 는 소나무 숲에서는 유난히 푸르름이 짙게  
 배어났다. 문득 '승(僧)이란 깨끗함이니  
 라' 라는 육조단경의 경구가 생각났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주석하는 삼일  
 암은 대웅전 뒷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상사당(上舍堂)  
 에 이르니 어느새 목련이 한껏 꽃망울을  
 머금고 있었다. 봄이 멀잖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삼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보성스님  
 께서는 웃으시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했어요. 오늘 절에서 자고 가나”라고 물으  
 셧다. 그렇다고 하자 스님은 “절에서 예불  
 도 드리고, 하룻밤 쪽 쉬고 가라”며 먼저  
 찾아온 이의 마음을 편하게 다독여 주신  
 다. 그리고는 나직히 말문을 여셨다.

“일을 박빙이라. 내 마음이 방편을 걸는  
 것 같아요. 옛날 태고 보우스님 밑에는 정  
 몽주 이성계가 있었어요. 한사람은 고려  
 충신이고, 한사람은 나라를 세웠어요. 요  
 새 사람들은 둘 다 좋다고 하겠지요. 알아  
 서들 제 길갈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필  
 요해요. 모두 개인의 욕심이 있어서 안되  
 는 겁니다.”

평소 소말하면서 자상하신 스님은 옛  
 이야기를 빚대어 경책부러 하신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선방스님들은 24시간 함께 수행하면서  
 음식이 적으면 적은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같이 나눠먹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함께  
 하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서로간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단이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된  
 다는 말입니다.”

울사로서 60년 가까이 생활을 해오신 스  
 님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공부를 집행해야  
 할 자리에 총무원 소임자에 도착한과가 있  
 는 스님이 있다는 것에 격노하셔서 이런  
 말씀부러 하신 것이다. 승가의 위상이 무  
 너질까 노심조사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  
 현하신 것일까. (물의를 빚었던 성혜스님  
 이 2월 5일 조계종 기획실장 자리를 물려  
 냈다)

스님은 언제나 계율의 중요함을 강조하  
 셧다.

“사람이 오관으로 인한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은 말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실천에서 비로  
 소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출가 사문에게  
 는 몇 백가지의 계가 내려지고 재가자들에게  
 는 오계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계를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  
 학(三學)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스님을  
 스님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율  
 입니다. 출가도 계를 받들어 지키겠다는 출  
 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계를 억지로  
 지키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율이 무슨  
 논쟁할 거리가 없습니다.”

1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범어사  
 에서 수계산법을 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  
 미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두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사자들은 죽기살기로 용을  
 쓰면서 수계를 시켜주지 않으면 범어사에  
 불지르겠다는 공갈까지 하는 겁니다. 우선  
 사중에서 놀래면서 어떻게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가 자못 감동했어요. 나는 부처님  
 법계의 일인데 마지막 승단의 보루인 계율  
 마저 문란해지면 안되겠더라고요. 법안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 단호하게 자격미달자  
 를 모두 탈락시켰고 마침내 그들 모두 퇴  
 방했어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소리 일색이었습니  
 다. 승단의 마지막 보루는 계율입니다. 지계정

### “지계정신이 살아 있을 때 정진과 해탈로 이어지는 것이죠”

신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서술편린 지계정  
 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정진과 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스님은 최근 달라이  
 라마가 프랑스 불교열풍에 대해 경계한 것  
 이 될 줄 아느냐고 물으셨다. “불교라는 말  
 과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  
 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전통의식  
 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 천년  
 간 쌓아온 정신적 지주를 한순간에 버려버  
 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사상에 몰입하는 현  
 대인들의 단순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부언  
 했다. 스님의 말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온 청정한 수행풍토가 무너  
 지고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들렸다.  
 스님은 이어 며칠 전 부산에 다녀온 얘  
 기를 하셨다.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성철스님 상좌가  
 탁발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  
 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고 물으니 하는 말이 ‘우리 은사스님이  
 보시하라고 했어요.’ 한단 말입니다. 그 가  
 운데 이 뭐꼬? 회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지요. 한가더라도 알뜰하게 배우고 수행  
 해야 됩니다”

방장실에서 나와 뜰에 서 있으니 호남의  
 명산 조계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송광사 경  
 내가 한꺼번에 다가왔다. 많은 유명 무명  
 의 수행자들이 이곳에 찾아와 낮과 밤을  
 밝히며 수도하였고, 이곳에서 진리의 깨달  
 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벅  
 차 올랐다.

객방에 짐을 풀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는  
 데 저너머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스님들은 넓은 강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바  
 랑공양을 하고, 재가자들은 공양간에서 공  
 양을 했다. 누더기 장삼을 걸치고 작은 지  
 팡이를 든 보성스님은 스님들의 공양하는  
 장면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재가자들이 공  
 양하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절에 찾아온 불자들이 공양을 잘하도  
 록 해야 한다”며 따뜻하게 한마디 하신다.  
 자상하신 스님의 면목을 살필 수 있었다.  
 저녁예불 후 담거기가 내려앉자 상사당

原本秘傳  
**그림의唐四柱大典**  
 직중율이 높은 사주법을 알려드립니다!  
 \* 당시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중·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 적성에 맞는 직업  
 \* 임태한 말로 남녀 구별하는 법  
 \* 길흉부적법 · 기초역리학  
 \* 남녀궁합론 · 각종태일법  
 \* 기초육각법  
 이선암 전호일 공저  
 65/236면/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생기)를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訣)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경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뉘어 있다.  
 2. 정지(陰宅)와 묘지(陰宅)는 풍수(風水)와 나뉘어  
 (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땅(凶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생물(生物)의 영체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32,000원

**사주학핵심비결**  
 국내 최초의 역사!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송일삼 지  
 신국판 양장본  
 값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명리진법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30,000원  
 2. 21c 최신 우리말 대운 만세력  
 4x6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15,000원(대)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10,000원(소)  
 3. 재미있는 호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12,000원(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질실이 당신을 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을 필자  
 보십시오.  
 A5신 / 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신비**를 치료  
**준행**을 사고 **준행**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32,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양장본 / 30,000원  
 10. 관상사상학 강의  
 신국판 / 양장본 /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양장본 /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양장본 /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 30,000원  
 16. 신비의 고행 꿈들이 실물이 대박과  
 신국판 / 양장본 / 11,000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 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특수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할  
 용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  
 법들을 요약, 정리, 수록하였습니.  
 예를 들어, 첩화관이나 사합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  
 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 자  
 기가 저지를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물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  
 리 그 상황을 지적하므로 來人의 顏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  
 으로서는 '카리스마'를 유출시키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  
 들로는  
 \* 악숙인이 울지, 안울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여의다면 언제 될지,  
 \* 임태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손인이 성립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 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지는 합니다  
 만 전문이므로, 이 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에 비하면 매우 반 값  
 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후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 그래서, 즉, 문  
 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  
 인 許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법은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  
 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許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  
 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윤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